

2. 시도 공통항목

-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 빈도
-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 2-16 가구 월평균 소득
-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 2-3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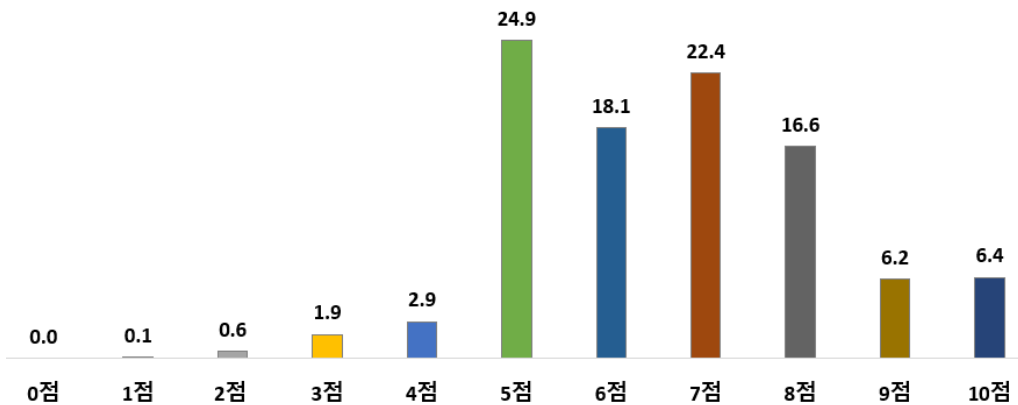
2-1 삶에 대한 만족감- 1) 자신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6점」

-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6.6점으로 「5점」(24.9%), 「7점」(22.4%), 「6점」(18.1%), 「8점」(16.6%) 순임.

- 지역별로 중부권(6.9점), 서남부권(6.7점), 북부권(6.1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6.5점)보다 남자(6.7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7.1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6.3점으로 가장 낮음.
- 직업별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7.5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직은 6.6점으로 가장 낮음.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표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17년	100.0	0.0	0.1	0.9	3.2	21.4	17.5	21.7	21.1	10.8	3.2	0.0	6.8
2018년	100.0	0.0	0.6	0.2	0.2	1.3	11.8	25.8	31.3	20.7	5.7	2.4	6.8
2019년	100.0	0.0	0.0	0.1	0.1	2.5	17.4	28.3	23.3	16.7	6.9	4.6	6.7
2020년	100.0	0.1	0.0	0.1	0.1	0.4	6.1	7.8	45.5	27.2	8.6	4.1	7.3
2021년	100.0	0.0	0.0	0.1	1.8	4.1	22.9	13.9	26.8	18.9	6.5	5.0	6.7
2022년	100.0	0.0	0.1	0.6	1.9	2.9	24.9	18.1	22.4	16.6	6.2	6.4	6.6
< 지역별 >													
중부권	100.0	0.0	0.3	0.7	1.0	2.9	20.2	16.3	24.7	17.1	6.0	10.8	6.9
북부권	100.0	0.0	0.0	1.1	5.9	7.4	26.8	24.4	11.6	11.8	6.6	4.3	6.1
서남부권	100.0	0.0	0.1	0.2	0.3	0.8	26.3	15.9	26.4	18.7	6.1	5.2	6.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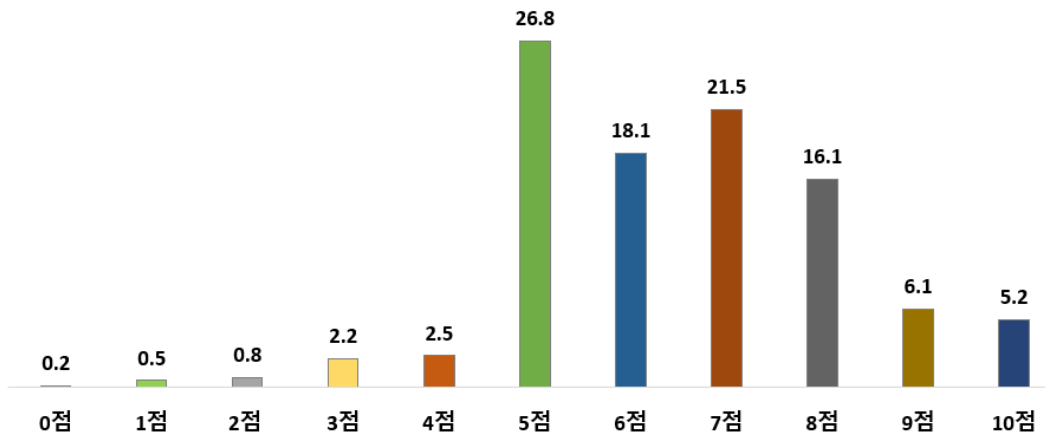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는 평균 「6.5점」

-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평균 6.5점으로 「5점」 26.8%, 「7점」 21.5%, 「6점」 18.1%, 「8점」 16.1%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서남부권(6.6점), 중부권(6.6점), 북부권(6.0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6.3점)보다 남자(6.6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가 6.7점으로 가장 높고, 15~29세가 6.2점으로 가장 낮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판매직(6.3점)이 가장 낮음.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표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0.1	0.0	0.1	0.6	0.3	6.3	9.1	45.0	25.9	7.9	4.6	7.3
2021년	100.0	0.0	0.0	0.0	2.0	4.6	22.9	14.5	25.5	18.8	7.0	4.7	6.6
2022년	100.0	0.2	0.5	0.8	2.2	2.5	26.8	18.1	21.5	16.1	6.1	5.2	6.5
< 지역별 >													
중부권	100.0	0.0	1.1	2.0	1.5	3.0	24.5	16.0	23.8	14.0	5.1	9.1	6.6
북부권	100.0	0.3	0.2	0.8	6.0	6.7	27.2	23.8	12.9	12.2	7.9	2.1	6.0
서남부권	100.0	0.2	0.4	0.2	0.8	0.2	27.7	16.4	24.5	19.0	5.7	4.9	6.6
< 성별 >													
남자	100.0	0.0	0.1	1.1	2.2	1.9	23.9	18.4	22.4	18.2	5.4	6.3	6.6
여자	100.0	0.3	1.1	0.4	2.3	3.1	30.1	17.7	20.4	13.7	6.9	3.9	6.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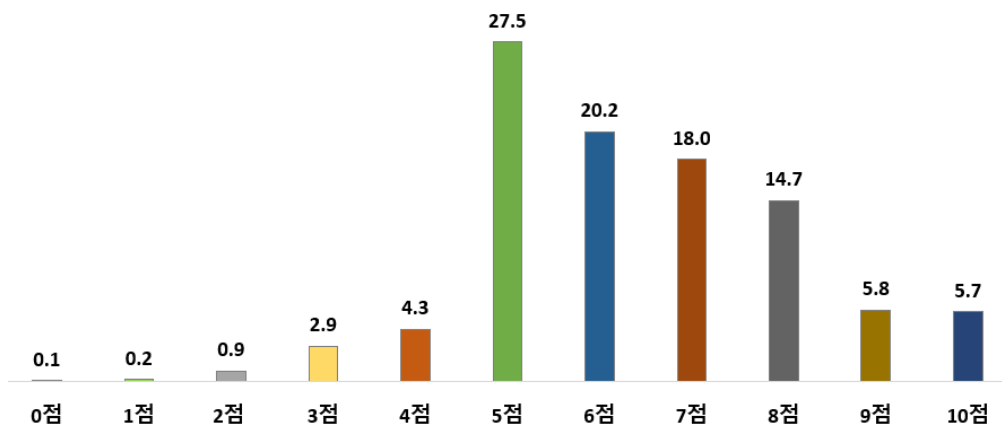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행복에 대한 빈도는 평균 「6.4점」

•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6.4점으로 「5점」 27.5%, 「6점」 20.2%, 「7점」 18.0%, 「8점」 14.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6.5점), 서남부권(6.5점), 북부권(6.0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6.3점)보다 남자(6.5점)의 행복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은 6.0점으로 가장 낮음.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행복빈도는 증가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7.6점으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이 6.3점으로 가장 낮음.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표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0.0	0.1	0.1	0.1	0.4	5.9	11.9	42.1	25.8	8.8	4.7	7.3
2021년	100.0	0.1	0.1	0.3	2.0	4.8	22.5	15.7	25.1	17.9	7.3	4.2	6.6
2022년	100.0	0.1	0.2	0.9	2.9	4.3	27.5	20.2	18.0	14.7	5.8	5.7	6.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0.2	0.7	1.4	3.4	6.6	23.3	12.0	19.2	17.3	6.0	10.0	6.5
북부권	100.0	0.2	0.0	1.2	5.9	7.6	29.1	21.8	11.2	11.7	7.3	4.0	6.0
서남부권	100.0	0.0	0.0	0.5	1.3	1.6	28.7	23.3	20.6	14.8	5.0	4.4	6.5
< 성 별 >													
남자	100.0	0.2	0.2	1.1	2.2	4.3	25.4	19.8	18.7	15.3	6.2	6.6	6.5
여자	100.0	0.0	0.1	0.6	3.7	4.3	29.8	20.7	17.1	13.9	5.2	4.6	6.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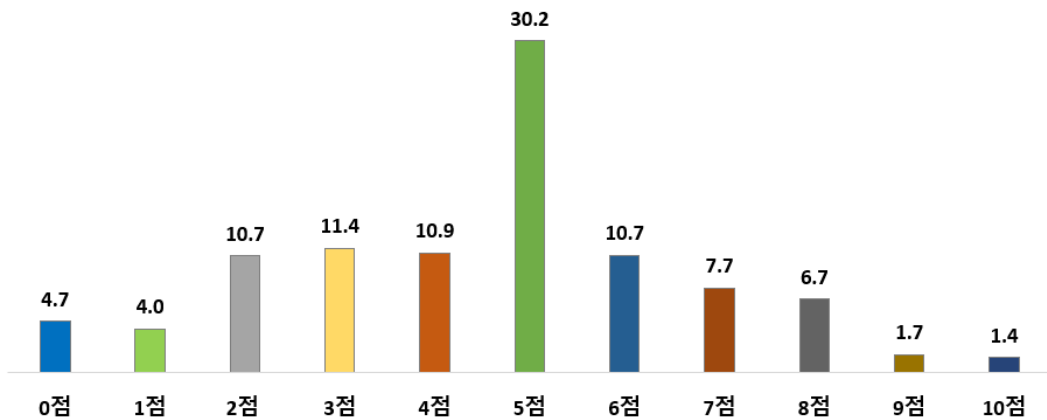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 빈도

걱정에 대한 빈도는 평균 「4.5점」

•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4.5점으로 「5점」 30.2%, 「3점」 11.4%, 「4점」 10.9%, 「6점」 10.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5.2점), 서남부권(4.4점), 북부권(4.1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4.5점)보다 남자(4.6점)의 걱정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가 4.8점으로 가장 높고, 15~29세가 4.4점으로 가장 낮음.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걱정빈도가 4.7점으로 가장 높고, 사무직 종사자가 4.2점으로 가장 낮음.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 빈도



[표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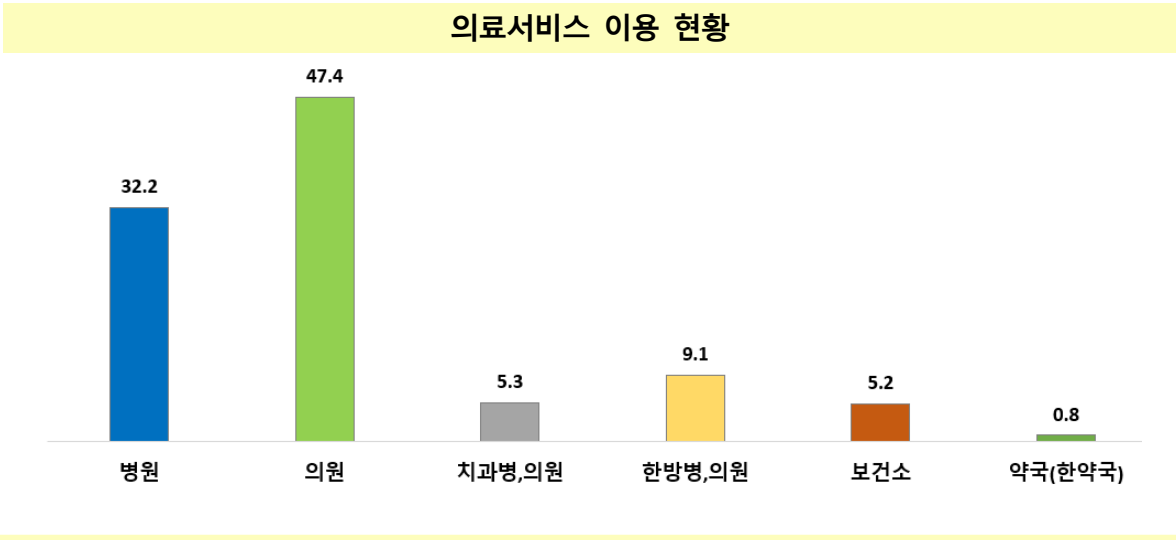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5.5	9.1	21.2	18.1	11.0	12.3	5.8	11.6	4.2	0.9	0.3	4.8
2021년	100.0	3.1	5.2	14.0	19.0	12.1	23.3	8.4	9.0	4.4	0.9	0.5	4.2
2022년	100.0	4.7	4.0	10.7	11.4	10.9	30.2	10.7	7.7	6.7	1.7	1.4	4.5
< 지역별 >													
중부권	100.0	5.3	3.3	13.8	10.7	5.6	11.7	10.4	12.1	19.4	3.9	3.8	5.2
북부권	100.0	0.8	5.8	11.1	17.1	16.8	34.5	7.5	4.0	1.3	0.4	0.8	4.1
서남부권	100.0	6.3	3.5	9.0	9.0	10.6	36.9	12.5	7.4	3.2	1.2	0.5	4.4
< 성별 >													
남자	100.0	4.6	4.4	10.9	10.6	10.9	29.6	10.9	7.7	7.3	1.8	1.3	4.6
여자	100.0	4.8	3.6	10.4	12.3	10.9	30.9	10.5	7.7	6.1	1.5	1.4	4.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67.7%」, 월 평균 「2.5회」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은 67.7%이며, 월 평균 이용횟수는 2.5회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중부권(79.1%), 북부권(71.6%), 서남부권(60.6%) 순이며, 월 평균 이용횟수는 북부권(3.6회), 서남부권(2.2회), 중부권(2.1회) 순으로 나타남.
 - 남자(63.7%, 2.1회)보다 여자(72.5%, 2.9회)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70세 이상(88.6%, 3.4회)에서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월 평균 이용횟수가 가장 많음. 이용경험은 15~29세(37.0%) 가장 적고, 이용회수는 30대(1.2회)가 가장 적음.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의원」 47.4%, 「병원」 32.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50.7%)과 북부권(70.9%)은 「의원」 이용이 많고, 서남부권은 「병원」(45.4%)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함.



[표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구 분	계	의료기관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월평균 이용 횟수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소계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소	약국(한약국)	기타			
2018년	100.0	80.4		100.0	18.6	66.5	2.8	4.2	7.4	0.4	0.0	19.6	
2020년	100.0	70.6	2.4	100.0	35.7	25.1	11.1	16.8	9.9	1.5	0.0	29.4	
2022년	100.0	67.7	2.5	100.0	32.2	47.4	5.3	9.1	5.2	0.8		32.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9.1	2.1	100.0	24.2	50.7	0.3	20.3	4.1	0.4		20.9	
북 부 권	100.0	71.6	3.6	100.0	17.6	70.9	5.0	5.4	0.6	0.5		28.4	
서 남 부 권	100.0	60.6	2.2	100.0	45.4	32.2	8.6	4.2	8.4	1.2		39.4	
< 성 별 >													
남 자	100.0	63.7	2.1	100.0	34.2	44.5	7.0	8.3	4.7	1.3		36.3	
여 자	100.0	72.5	2.9	100.0	30.2	50.4	3.5	9.9	5.7	0.3		27.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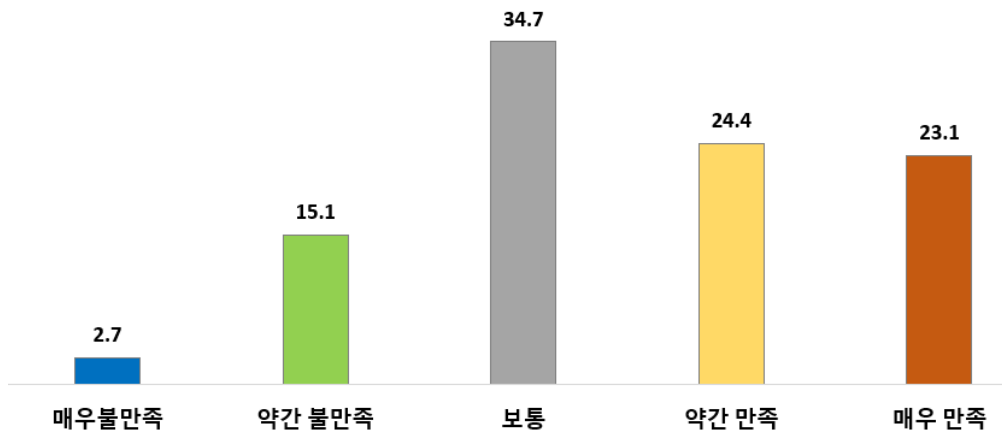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함」

•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만족도는 「보통」에 대한 응답이 34.7%로 가장 많고, 「약간 만족」 24.4%, 「매우 만족」 23.1% 순으로 나타남.

- 「불만족」(17.8%) 보다 「만족」(47.5%) 응답이 더 많음.
- 지역별로 만족도 평균은 중부권(3.7점), 북부권(3.6점), 서남부권(3.3점) 순으로 조사됨.
- 남자(43.3%)보다 여자(51.8)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15~29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만족」은 30대(58.0%), 「불만족」은 15~29세(32.2%)에서 가장 많이 응답함.

의료서비스 만족도



[표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분	계	매우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평균
2018년	100.0	1.7	10.2	37.1	34.5	16.4	3.5
2020년	100.0	0.9	8.6	47.5	30.9	12.0	3.4
2022년	100.0	2.7	15.1	34.7	24.4	23.1	3.5
< 지역별 >							
중부권	100.0	1.0	14.3	29.0	22.9	32.8	3.7
북부권	100.0	0.3	10.4	46.3	11.1	31.9	3.6
서남부권	100.0	5.0	18.2	31.6	32.8	12.3	3.3
< 성별 >							
남자	100.0	1.7	16.7	38.3	22.8	20.5	3.4
여자	100.0	3.7	13.6	30.9	26.0	25.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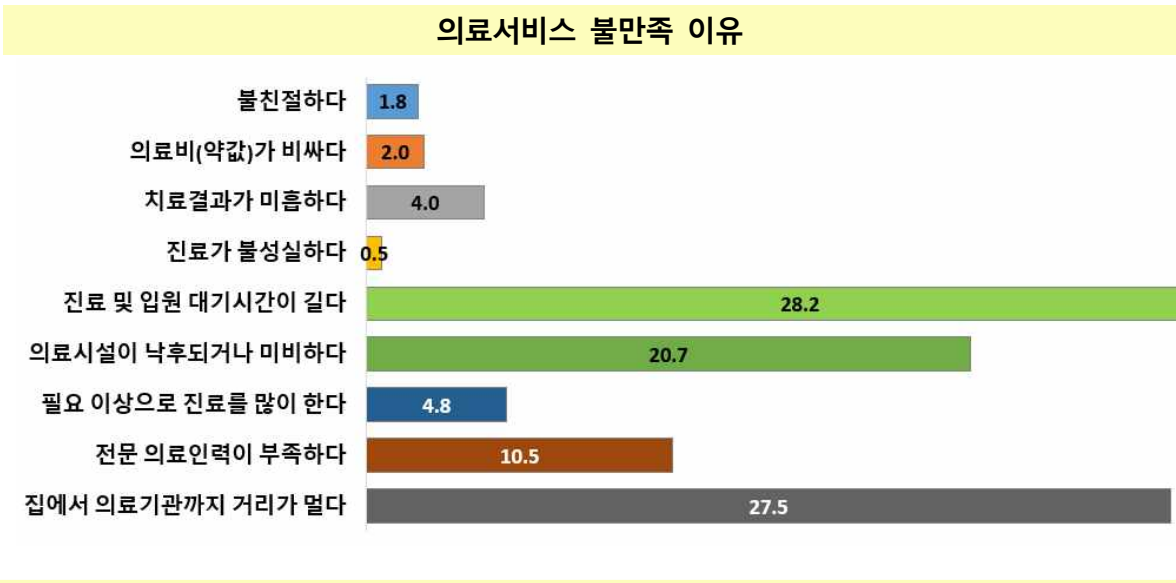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가 28.2%로 가장 많고,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27.5%),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20.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0.6%)과 북부권(21.7%)은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38.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32.1%), 여자는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31.5%)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40대는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와 50대, 70세 이상은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 60대는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응답이 가장 많음.



[표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계	불친절하다	의료비(약값)가 비싸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기타
2018년 1순위	100.0	4.1	27.3	13.5	3.7	12.1	14.6	7.2	5.4	12.2	
2018년 2순위	100.0	3.2	12.9	7.4	0.8	15.8	15.3	4.2	22.9	17.5	
2020년	100.0	6.3	5.2	9.5	10.2	15.9	6.6	6.9	19.7	19.7	
2022년	100.0	1.8	2.0	4.0	0.5	28.2	20.7	4.8	10.5	27.5	
< 지역별 >											
중부권	100.0	0.0	1.5	0.0	1.3	40.6	30.1	5.8	14.4	6.3	
북부권	100.0	7.9	4.1	13.9	1.3	21.7	16.4	6.3	7.1	21.2	
서남부권	100.0	1.0	1.6	3.3	0.0	24.4	17.6	4.0	9.6	38.5	
< 성별 >											
남자	100.0	3.1	2.1	4.5	0.0	32.1	15.4	7.6	11.6	23.7	
여자	100.0	0.4	1.8	3.5	1.1	24.3	26.1	2.0	9.3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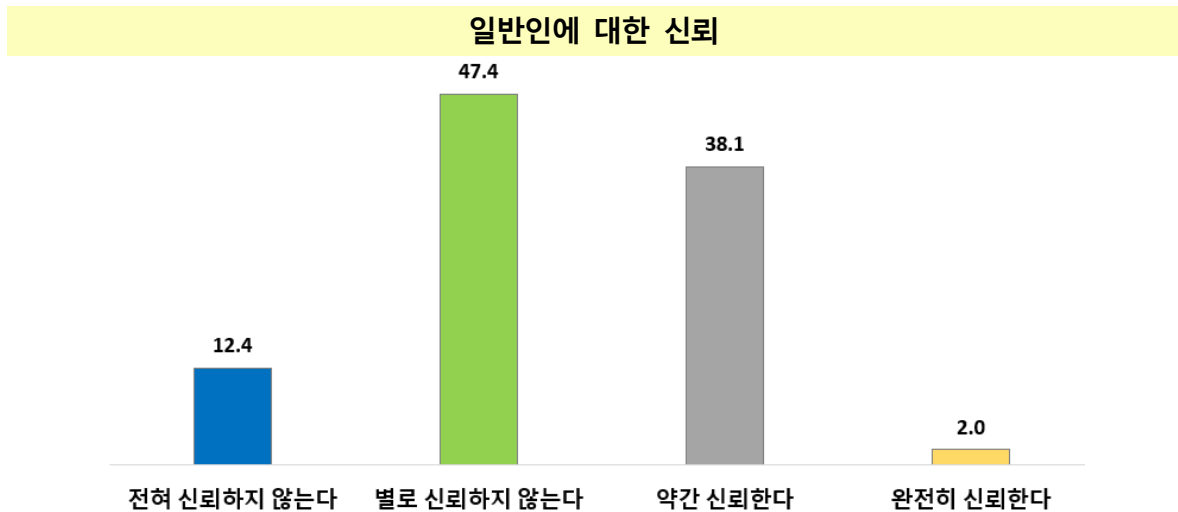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뢰한다」 응답이 40.1%로 나타남.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47.4%로 가장 많고, 「약간 신뢰한다」(38.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2.4%), 「완전히 신뢰한다」(2.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신뢰한다」 응답은 북부권(48.0%), 중부권(41.1%), 서남부권(35.9%) 순으로 나타남.
- 여자(37.1%)보다 남자(42.8%)가 더 「신뢰한다」고 나타남.
- 연령별로 「신뢰한다」 응답은 60대(45.9%)에서 가장 많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29세(69.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020년	100.0	12.9	43.2	40.7	3.2
2022년	100.0	12.4	47.4	38.1	2.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5.3	43.5	39.9	1.2
북부권	100.0	7.2	44.8	44.6	3.3
서남부권	100.0	13.5	50.5	34.2	1.7
< 성 별 >					
남자	100.0	10.0	47.2	40.6	2.2
여자	100.0	15.2	47.7	35.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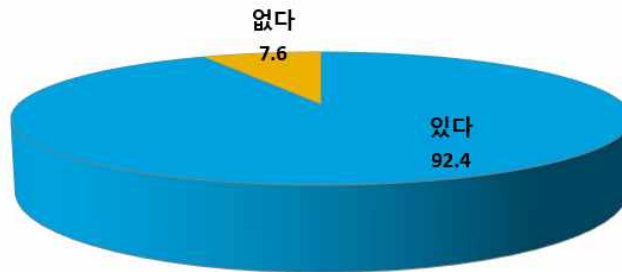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4.1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는 응답은 92.4%, 평균 「4.1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서남부권(99.5%, 4.5명), 북부권(94.1%, 4.0명), 중부권(75.6%, 3.5명) 순으로 나타남.
- 남자(92.2%)보다 여자(92.6%)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많고, 평균 인원은 여자(3.7명)보다 남자(4.5명)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평균인원은 30대(100.0%, 5.0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표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구 분	계	있 다		없 다
			평균인원	
2 0 2 0 년	100.0	97.6	4.4	2.4
2 0 2 2 년	100.0	92.4	4.1	7.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5.6	3.5	24.4
북 부 권	100.0	94.1	4.0	5.9
서 남 부 권	100.0	99.5	4.5	0.5
< 성 별 >				
남 자	100.0	92.2	4.5	7.8
여 자	100.0	92.6	3.7	7.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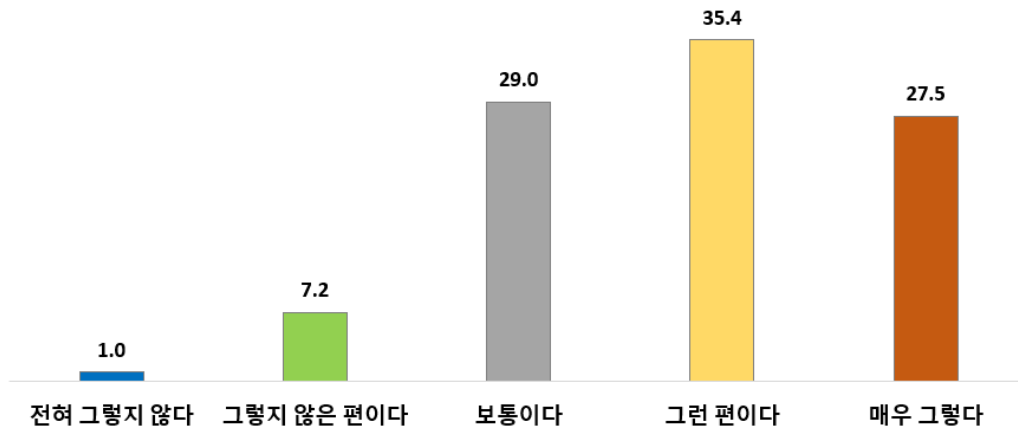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지역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 62.9%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정도는 「그런 편이다」 응답이 35.4%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9.0%), 「매우 그렇다」(27.5%)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8.1%) 응답보다 「그렇다」(62.9%)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이다」(41.9%)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64.5%)과 서남부권(73.2%)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62.0%)보다 여자(63.9%)가 서로서로 알고 지내는 편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알고 지낸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렇다」 응답은 50대(66.8%)가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15~29세(21.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표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5	4.7	20.5	46.7	26.5
2022년	100.0	1.0	7.2	29.0	35.4	27.5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1	16.6	41.9	32.3	7.1
북 부 권	100.0	1.8	7.5	26.2	40.9	23.7
서 남 부 권	100.0	0.0	2.6	24.2	34.2	39.0
< 성 별 >						
남 자	100.0	0.7	7.0	30.3	34.8	27.2
여 자	100.0	1.3	7.3	27.5	36.0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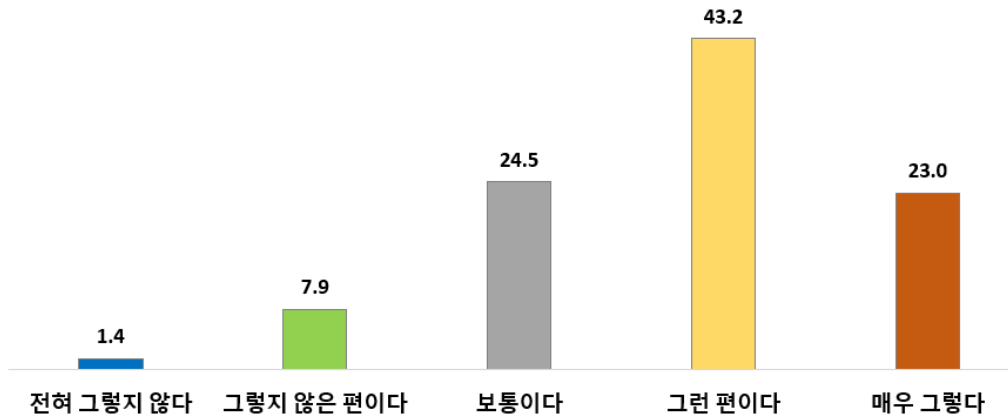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56.0%

-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런 편이다」 응답이 43.2%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4.0%), 「매우 그렇다」(23.0%)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15.4%) 응답보다 「그렇다」(56.0%)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이다」(36.9%)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8.1%)과 서남부권(65.3%)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5.9%)보다 남자(56.1%)가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함.
-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렇다」 응답은 70세 이상이 63.3%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15~29세(42.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표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4	7.9	24.5	43.2	23.0
2022년	100.0	2.2	13.2	28.6	30.8	25.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6.1	22.8	36.9	29.9	4.2
북부권	100.0	2.7	11.3	27.8	38.0	20.2
서남부권	100.0	0.0	9.6	25.1	27.7	37.6
< 성 별 >						
남자	100.0	2.4	12.7	28.9	31.5	24.6
여자	100.0	1.9	13.9	28.3	29.9	26.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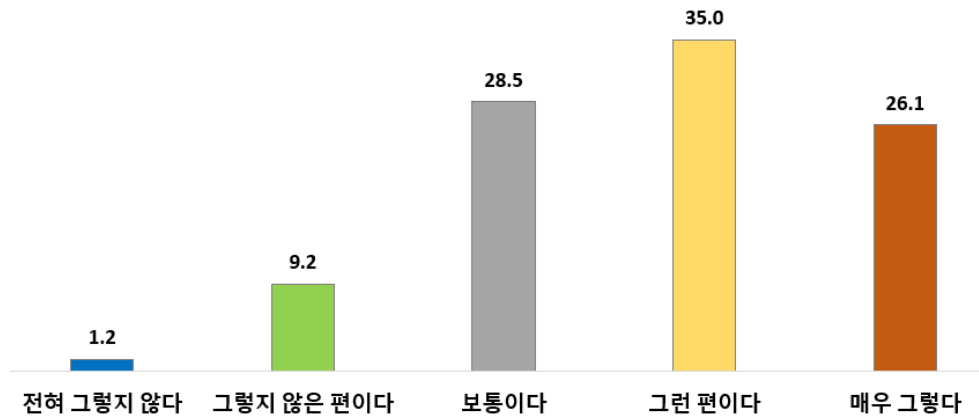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어려운 일에 서로 「돕는다」 61.1%

• 지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그런 편이다」 응답이 35.0%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8.5%), 「매우 그렇다」(26.1%)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10.4%) 응답보다 「그렇다」(61.1%)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그렇다」(46.1%)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70.6%), 북부권(60.3%), 중부권(41.9%) 순으로 나타남.
- 여자(60.6%)보다 남자(61.5%)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그렇다」 응답은 50대가 65.9%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15~29세(25.8%)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표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3	5.3	24.1	45.4	23.8
2022년	100.0	1.2	9.2	28.5	35.0	26.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6	17.1	38.4	35.7	6.1
북 부 권	100.0	2.3	9.5	27.9	37.4	22.9
서 남 부 권	100.0	0.0	5.4	24.1	33.6	37.0
< 성 별 >						
남 자	100.0	0.7	8.8	29.0	36.3	25.2
여 자	100.0	1.8	9.7	27.9	33.6	27.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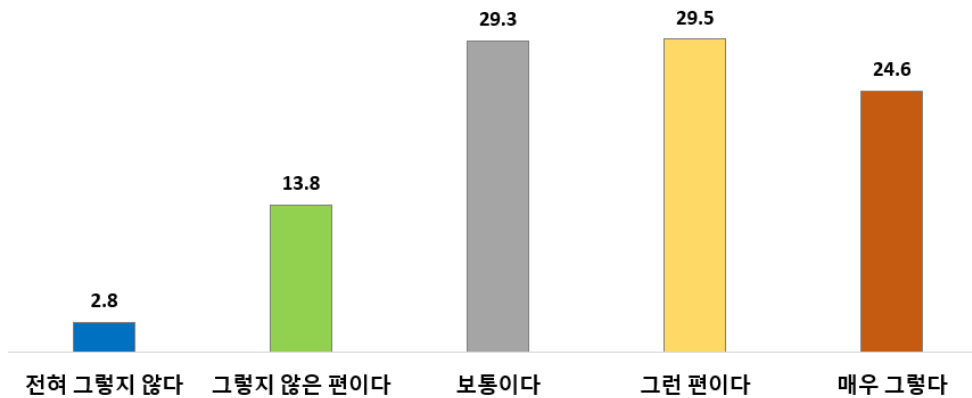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54.0%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평소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응답이 29.5%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29.3%), 「매우 그렇다」(24.6%)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16.7%) 응답보다 「그렇다」(54.0%)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그렇다」(46.1%)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61.6%), 북부권(54.9%), 중부권(37.1%) 순으로 나타남.
- 여자(52.8%)보다 남자(55.1%)가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그렇다」 응답은 50대가 60.7%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15~29세(44.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표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위: %)

구 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2.2	9.9	26.7	37.8	23.4
2022년	100.0	2.8	13.8	29.3	29.5	24.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0	21.0	36.9	30.8	6.3
북 부 권	100.0	4.3	10.9	29.9	32.6	22.3
서 남 부 권	100.0	1.1	11.9	25.4	27.3	34.3
< 성 별 >						
남 자	100.0	1.9	12.3	30.7	30.8	24.3
여 자	100.0	3.9	15.6	27.7	27.9	24.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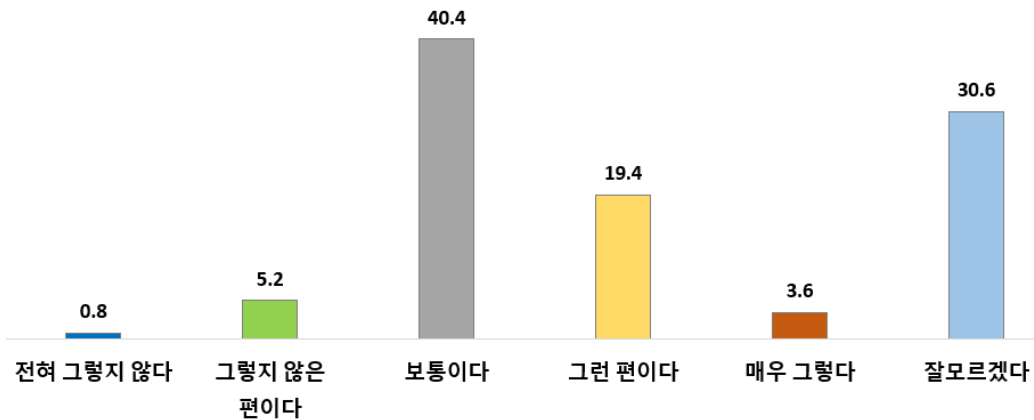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보통」

•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는 「보통이다」(40.4%) 응답이 가장 많고, 「잘 모르겠다」(30.6%), 「그런 편이다」(19.4%)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6.1%) 응답보다 「그렇다」(23.0%)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고, 「그렇다」응답은 북부권(30.5%), 중부권(21.1%), 서남부권(20.4%) 순으로 나타남.
- 여자(21.7%)보다 남자(24.1%)가 잘 제공된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그렇다」 응답은 40대(32.6%)에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40대(9.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표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만족도	잘 모르겠다
2020년	100.0	1.2	4.5	21.7	20.4	7.6	3.5	44.6
2022년	100.0	0.8	5.2	40.4	19.4	3.6	3.3	30.6
< 지역별 >								
중부권	100.0	0.9	4.8	38.3	17.5	3.6	3.3	34.9
북부권	100.0	1.2	6.4	31.0	25.6	4.9	3.4	30.9
서남부권	100.0	0.7	4.9	45.7	17.4	3.0	3.2	28.4
< 성별 >								
남자	100.0	0.6	5.8	39.5	20.8	3.3	3.3	29.9
여자	100.0	1.1	4.5	41.3	17.7	4.0	3.3	31.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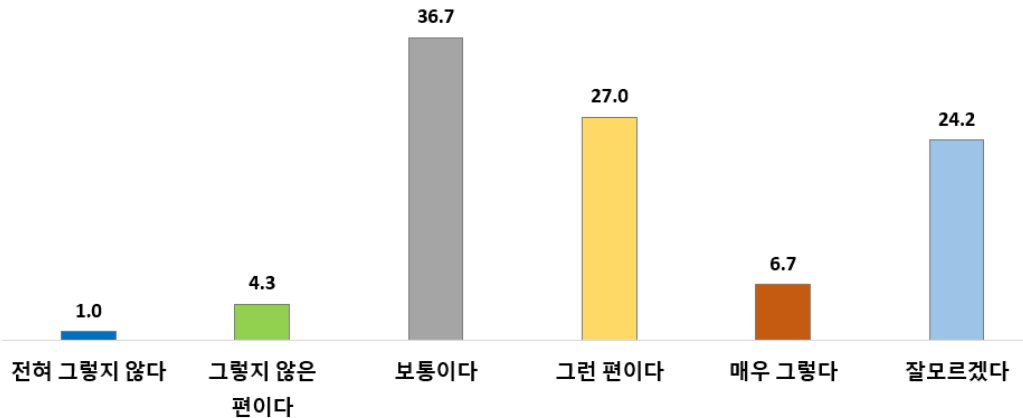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통이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36.7%) 응답이 가장 많고, 「잘모르겠다」(24.2%), 「그런 편이다」(27.0%) 순으로 나타남.

- 「그렇지 않다」(5.3%) 응답보다 「그렇다」(33.7%)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6.4%)과 서남부권(39.3%)은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그렇다」(36.6%) 응답이 가장 많음. 「그렇다」응답은 서남부권(36.6%), 북부권(33.5%), 중부권(27.9%) 순으로 나타남.
- 여자(31.4%)보다 남자(35.8%)가 잘 제공된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그렇다」 응답은 40대(41.2%)에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 응답은 15~29세(9.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표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만족도	잘모르겠다
2020년	100.0	0.2	4.0	24.8	28.7	11.8	3.7	30.5
2022년	100.0	1.0	4.3	36.7	27.0	6.7	3.5	24.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0.9	4.2	36.4	22.5	5.4	3.4	30.6
북부권	100.0	1.9	8.1	31.4	23.8	9.7	3.4	25.1
서남부권	100.0	0.6	2.6	39.3	30.6	6.0	3.5	20.9
< 성 별 >								
남자	100.0	1.1	4.4	35.7	27.5	8.3	3.5	23.0
여자	100.0	0.8	4.2	37.9	26.5	4.9	3.4	25.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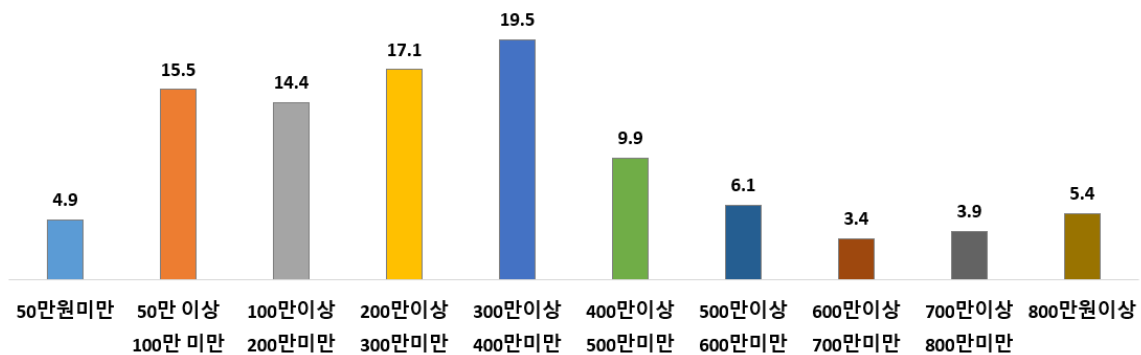
2-16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가장 많음

•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19.5%로 가장 많고, 「200만원~300만원」(17.1%), 「50만원~100만원」(15.5%)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평균 소득은 323.9만원으로 전년(291.6만원) 대비 32.3만원 증가함.
- 지역별로 평균 소득은 중부권(346.2만원), 서남부권(319.5만원), 북부권(308.5만원) 순이며, 중부권과 북부권의 평균 소득 차이는 37.7만원임.
- 남자(368.3만원)와 여자(199.4만원)의 평균 소득 차이는 168.9만원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40대의 평균 가구소득(453.4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425.8만원)과 중졸이하(238.1만원)의 평균 소득 차이는 187.7만원임.
- 직업별로 기능/노무 종사자(413.9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고, 전문/관리직종사자(325.5만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두 직업군의 평균 소득 차이는 88.4만원으로 분석됨.

가구 월평균 소득



[표 2-16]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원 이상	평균(만원)
2017년	100.0	11.0	21.1	25.7	18.1	13.7	5.6	2.0	0.6	2.2		209.9
2018년	100.0	7.2	19.5	20.0	23.7	15.8	6.0	2.0	2.4	0.6	2.8	245.4
2019년	100.0	8.4	15.4	18.9	21.8	16.9	7.9	2.9	2.7	0.4	4.6	270.6
2020년	100.0	2.1	13.2	17.9	22.6	18.9	11.7	3.1	2.4	2.1	6.0	315.7
2021년	100.0	2.6	14.8	19.9	22.2	17.7	11.1	2.7	3.9	2.3	2.7	291.6
2022년	100.0	4.9	15.5	14.4	17.1	19.5	9.9	6.1	3.4	3.9	5.4	323.9
<지역별>												
중부권	100.0	0.9	12.3	14.1	17.7	24.2	10.8	8.2	2.9	4.1	4.8	346.2
북부권	100.0	6.2	18.2	14.5	18.0	15.6	10.4	4.9	3.5	2.9	5.9	308.5
서남부권	100.0	6.3	15.9	14.5	16.4	18.8	9.2	5.5	3.5	4.3	5.5	319.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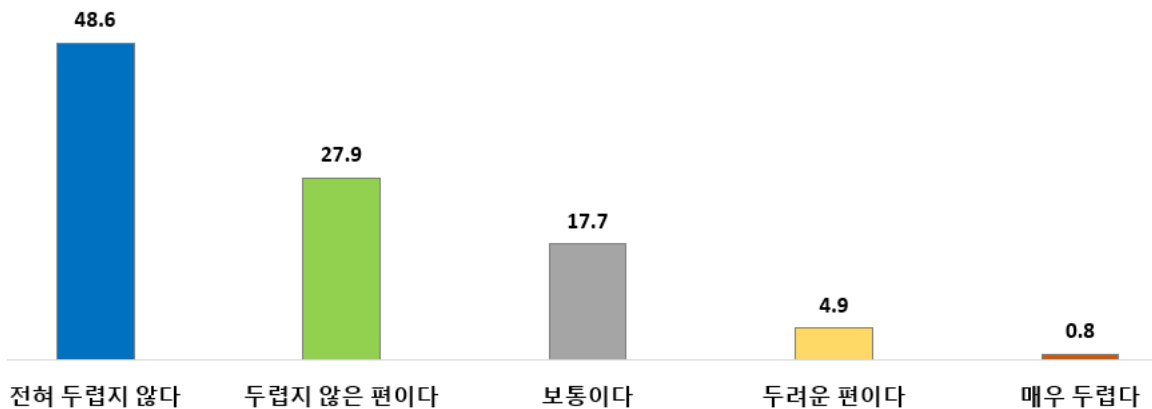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고, 「두렵지 않은 편이다」(27.9%), 「보통이다」(17.7%)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5.7%)는 응답보다 「두렵지 않다」(76.5%)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두렵다」는 응답은 북부권(8.0%), 중부권(6.3%), 서남부권(4.4%)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는 응답은 남자(3.3%)보다 여자(8.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60대(79.9%)에서 가장 많고, 「두렵다」 응답은 15~29세(13.4%)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표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단위: %)

구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년	100.0	57.9	20.3	15.3	6.2	0.4
2022년	100.0	48.6	27.9	17.7	4.9	0.8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9.4	25.2	29.1	4.5	1.8
북부권	100.0	44.8	29.6	17.6	7.6	0.4
서남부권	100.0	54.8	28.4	12.4	3.8	0.6
< 성 별 >						
남자	100.0	57.4	26.0	13.2	3.0	0.4
여자	100.0	38.4	30.1	23.0	7.1	1.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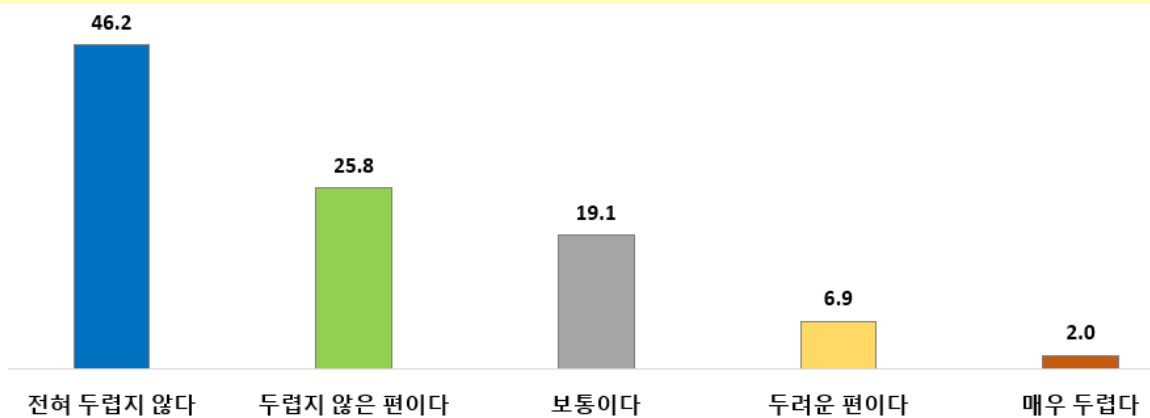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

•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전혀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고, 「두렵지 않은 편이다」(25.8%), 「보통이다」(19.1%)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8.9%)는 응답보다 「두렵지 않다」(72.0%)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두렵다」는 응답은 중부권(13.6%), 북부권(10.3%), 서남부권(5.9%) 순으로 나타남.
- 「두렵다」는 응답은 남자(3.5%)보다 여자(15.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40대(75.3%)와 60대(75.3%)에서 가장 많고, 「두렵다」 응답은 15~29세(23.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표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단위: %)

구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년	100.0	54.9	20.4	17.1	6.9	0.7
2022년	100.0	46.2	25.8	19.1	6.9	2.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4.7	24.2	27.5	8.1	5.5
북부권	100.0	44.3	27.4	18.0	9.1	1.2
서남부권	100.0	52.6	25.8	15.7	5.2	0.7
< 성 별 >						
남자	100.0	56.9	26.3	13.3	3.0	0.5
여자	100.0	33.9	25.2	25.9	11.3	3.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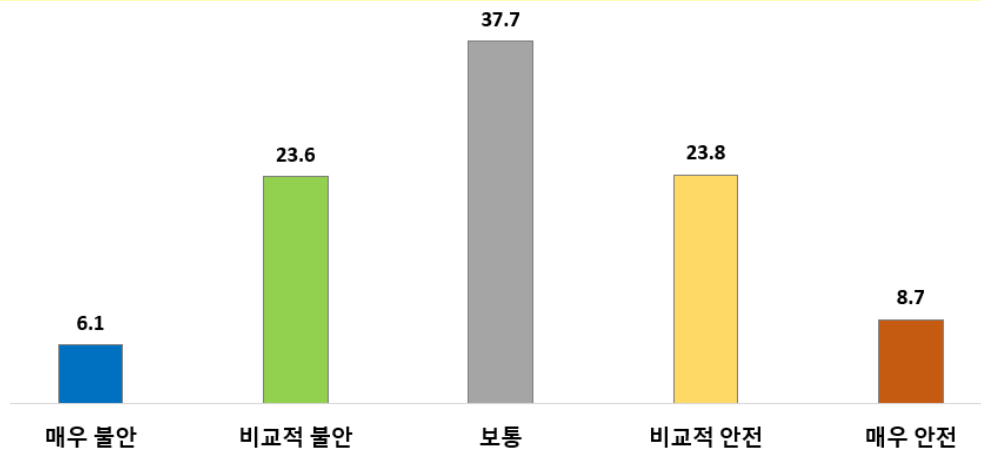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환경 「보통」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7.7%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23.8%), 「비교적 불안」(23.6%)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29.7%) 응답보다 「안전하다」(32.5%)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3.9%)과 북부권(46.3%)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불안하다」(38.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32.1%)보다 남자(32.9%)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15~29세(41.9%)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50대(34.4%)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표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6.6	18.6	36.1	35.2	3.5
2020년	100.0	5.0	22.7	31.3	34.7	6.3
2022년	100.0	6.1	23.6	37.7	23.8	8.7
< 지역별 >						
중부권	100.0	3.1	24.5	43.9	27.6	0.8
북부권	100.0	1.5	11.1	46.3	23.1	18.1
서남부권	100.0	9.7	29.2	30.7	22.4	8.0
< 성별 >						
남자	100.0	5.4	24.9	36.7	24.1	8.8
여자	100.0	6.9	22.1	38.9	23.5	8.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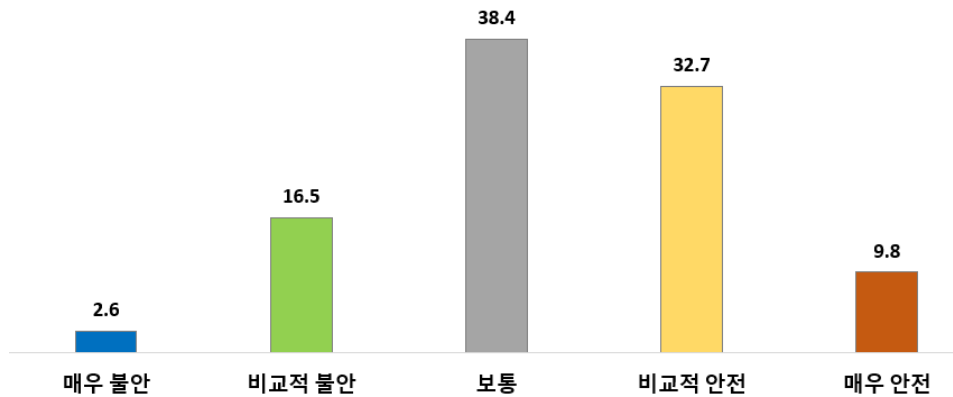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환경 「안전」

•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안전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8.4%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32.7%), 「비교적 불안」(16.5%)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9.1%) 응답보다 「안전하다」(42.5%)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2.1%)과 북부권(47.4%)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안전하다」(45.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0.7%)보다 남자(44.1%)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50대(44.9%)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30대(27.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표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4.8	7.2	49.1	34.3	4.7
2020년	100.0	2.5	8.6	36.4	41.8	10.7
2022년	100.0	2.6	16.5	38.4	32.7	9.8
< 지역별 >						
중부권	100.0	0.4	24.7	42.1	29.2	3.6
북부권	100.0	0.4	6.6	47.4	26.0	19.6
서남부권	100.0	4.6	17.4	32.4	37.5	8.1
< 성별 >						
남자	100.0	2.1	16.8	37.1	34.4	9.7
여자	100.0	3.2	16.2	39.9	30.7	1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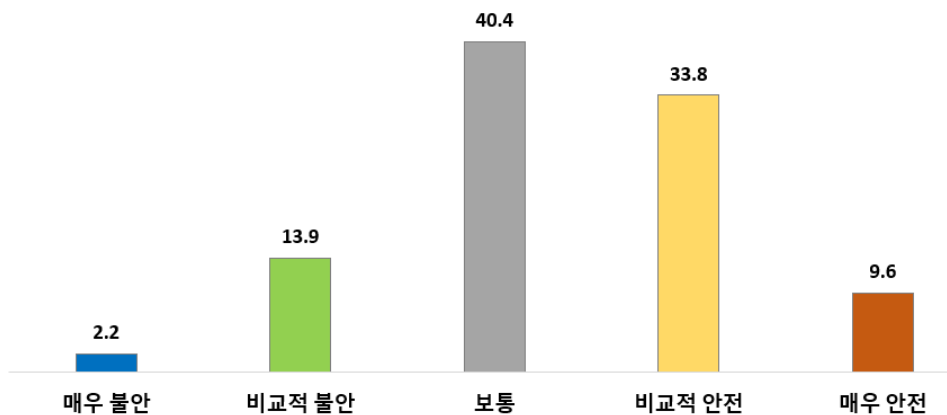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교통사고 안전 환경 「안전」

- 교통사고 안전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40.4%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33.8%), 「비교적 불안」(13.9%)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6.1%) 응답보다 「안전하다」(43.5%)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6.8%)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5.4%)과 서남부권(51.0%)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1.5%)보다 남자(45.1%)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15~29세(52.9%)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30대(19.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표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9	11.6	38.6	38.9	10.0
2020년	100.0	1.5	8.4	40.6	39.4	10.2
2022년	100.0	2.2	13.9	40.4	33.8	9.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8	25.8	46.8	24.5	1.1
북 부 권	100.0	1.3	9.9	43.3	31.3	14.1
서 남 부 권	100.0	2.8	10.2	36.1	39.5	11.5
< 성 별 >						
남 자	100.0	2.2	13.1	39.6	35.5	9.6
여 자	100.0	2.2	14.9	41.4	31.9	9.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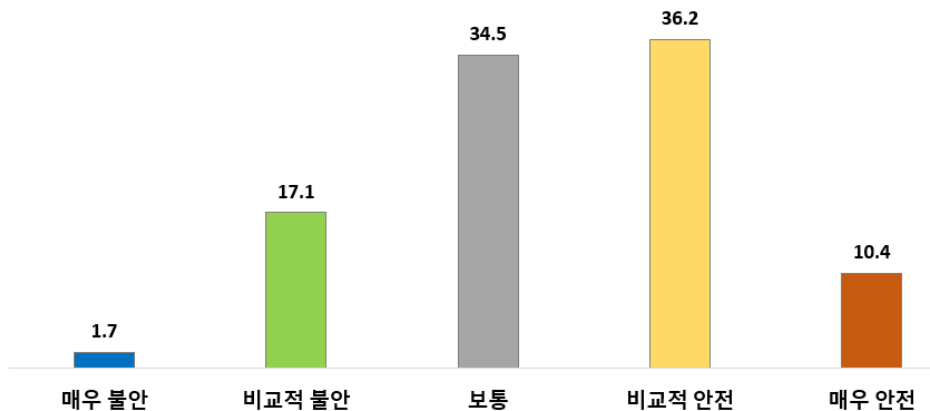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화재 안전 환경 「안전」

• 산불을 포함한 화재 안전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보통」(34.5%), 「비교적 불안」(17.1%)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8.9%) 응답보다 「안전하다」(46.6%)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5.1%)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5.6%)과 서남부권(56.0%)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3.8%)보다 남자(49.0%)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40대(51.4%)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50대(22.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표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1.3	11.9	44.3	33.9	8.5
2020년	100.0	1.7	10.1	38.6	39.3	10.4
2022년	100.0	1.7	17.1	34.5	36.2	10.4
< 지역별 >						
중부권	100.0	0.5	26.6	45.1	25.5	2.3
북부권	100.0	4.5	9.7	40.1	26.9	18.8
서남부권	100.0	1.0	16.2	26.8	45.7	10.3
< 성별 >						
남자	100.0	1.7	15.1	34.2	38.4	10.7
여자	100.0	1.8	19.5	34.8	33.7	1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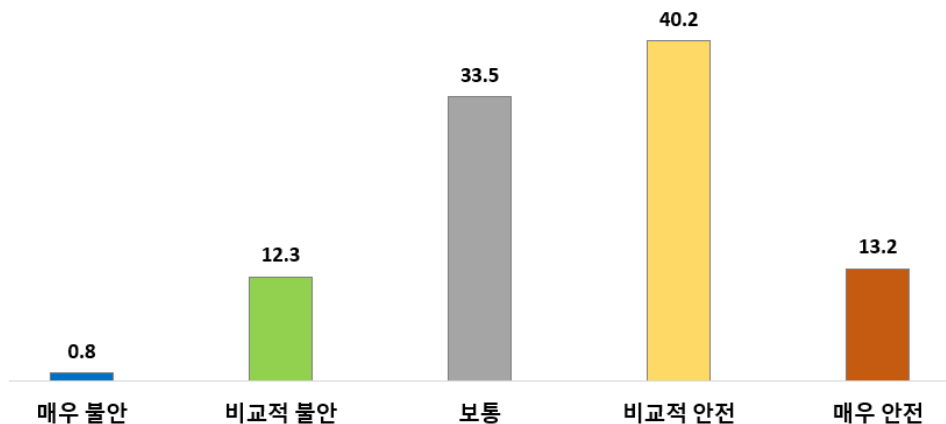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 환경 「안전」

- 불량식품,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 응답이 40.2%로 가장 많고, 「보통」(33.5%), 「매우 안전」(13.2%)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3.1%) 응답보다 「안전하다」(53.4%)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2.9%)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6.9%)과 서남부권(59.2%)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1.0%)보다 남자(55.4%)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15~29세(61.1%)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60대(15.9%)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표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1	3.9	45.2	39.9	10.8
2020년	100.0	0.9	3.2	37.2	45.1	13.6
2022년	100.0	0.8	12.3	33.5	40.2	13.2
< 지역별 >						
중부권	100.0	0.0	19.7	42.9	29.8	7.6
북부권	100.0	0.2	3.7	39.2	32.7	24.2
서남부권	100.0	1.6	12.8	26.3	48.6	10.7
< 성별 >						
남자	100.0	0.9	10.8	32.8	41.9	13.5
여자	100.0	0.7	14.0	34.3	38.1	12.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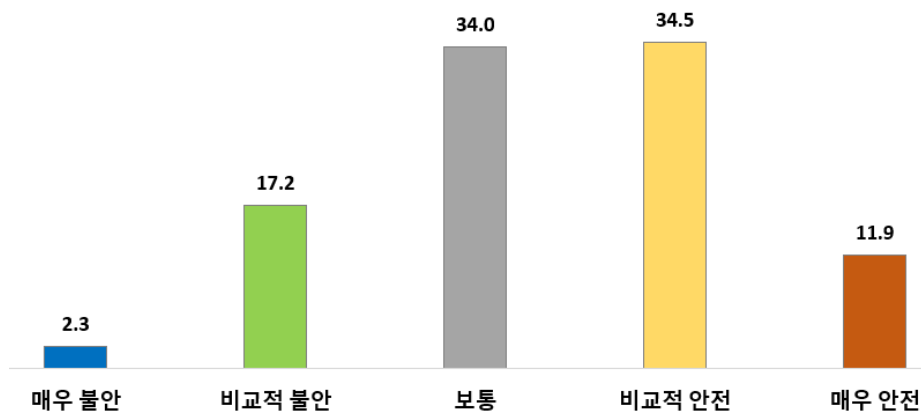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정보 보안 안전 환경 「안전」

-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정보보안 안전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보통」(34.0%), 「비교적 불안」(17.2%)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9.5%) 응답보다 「안전하다」(46.5%)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8.9%)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9.1%)과 서남부권(53.4%)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3.4%)보다 남자(49.1%)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15~29세(63.8%)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60대(23.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표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1.0	9.2	45.8	37.4	6.6
2020년	100.0	1.1	7.7	32.8	46.4	12.1
2022년	100.0	2.3	17.2	34.0	34.5	11.9
< 지역별 >						
중부권	100.0	1.0	20.8	48.9	27.2	2.1
북부권	100.0	0.0	8.3	42.6	27.2	21.9
서남부권	100.0	4.0	19.7	22.9	41.5	11.9
< 성별 >						
남자	100.0	2.3	16.5	32.1	37.8	11.3
여자	100.0	2.3	18.0	36.3	30.7	12.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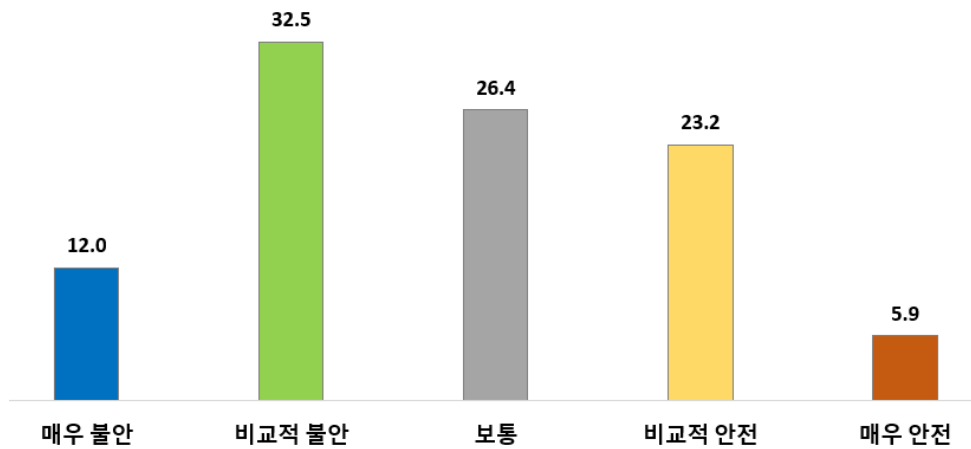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 안전 환경 「불안」

• 신종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 안전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불안」 응답이 32.5%로 가장 많고, 「보통」(26.4%), 「비교적 안전」(23.2%)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29.1%) 응답보다 「불안하다」(44.6%)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3.0%)과 서남부권(53.9%)은 「불안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안전하다」(40.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26.7%)보다 남자(31.2%)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70세 이상(52.1%)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15~29세(42.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표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7	13.8	38.8	38.4	8.3
2020년	100.0	24.5	13.6	23.4	34.1	4.3
2022년	100.0	12.0	32.5	26.4	23.2	5.9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2	24.8	37.5	17.4	2.1
북부권	100.0	6.4	20.2	33.0	21.9	18.5
서남부권	100.0	11.8	42.0	17.9	26.5	1.7
< 성별 >						
남자	100.0	11.4	30.9	26.5	24.8	6.3
여자	100.0	12.8	34.3	26.2	21.3	5.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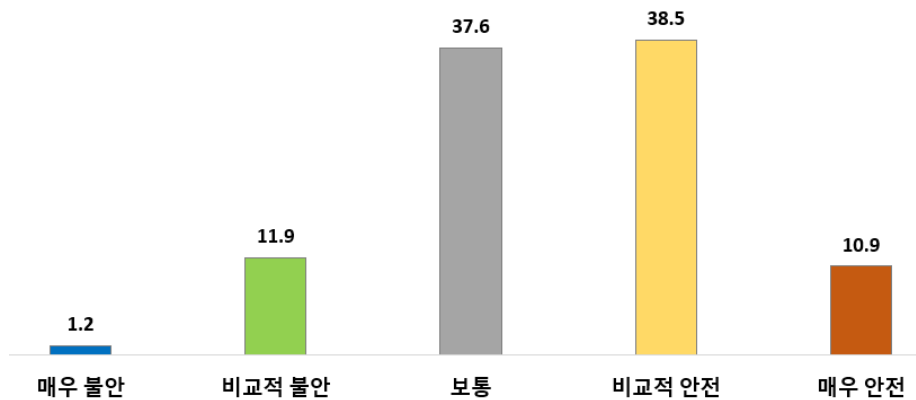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범죄위험 안전 환경 「안전」

• 범죄위험 안전 환경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 응답이 38.5%로 가장 많고, 「보통」(37.6%), 「비교적 불안」(11.9%)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3.0%) 응답보다 「안전하다」(49.4%)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51.3%)과 북부권(47.5%)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안전하다」(58.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6.6%)보다 남자(51.8%)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54.5%)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60대(15.9%)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표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9	8.3	39.7	39.3	11.9
2020년	100.0	1.5	3.6	36.0	47.1	11.6
2022년	100.0	1.2	11.9	37.6	38.5	10.9
< 지역별 >						
중부권	100.0	1.1	15.1	51.3	31.2	1.3
북부권	100.0	0.7	5.6	47.5	27.5	18.7
서남부권	100.0	1.4	13.4	26.3	47.3	11.7
< 성별 >						
남자	100.0	1.2	10.9	36.1	40.2	11.6
여자	100.0	1.1	13.0	39.3	36.6	1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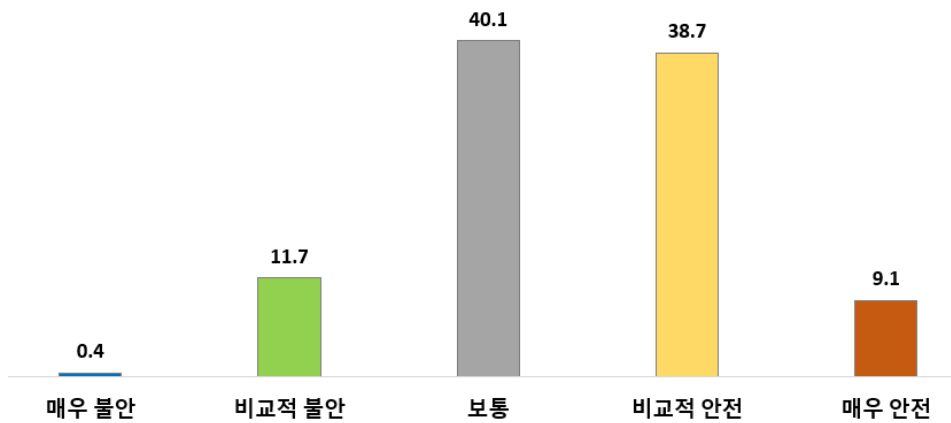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 환경 「안전」

• 전반적인 사회 안전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40.1%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38.7%), 「비교적 불안」(11.7%) 순으로 나타남.

- 「불안하다」(12.1%) 응답보다 「안전하다」(47.8%)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51.1%)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2.1%)과 서남부권(54.0%)은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4.4%)보다 남자(50.7%)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51.3%)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15~29세(14.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표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1	4.1	44.8	42.2	8.8
2020년	100.0	1.2	3.2	36.6	47.2	11.7
2022년	100.0	0.4	11.7	40.1	38.7	9.1
< 지역별 >						
중부권	100.0	1.1	17.7	51.1	28.9	1.2
북부권	100.0	0.2	3.2	44.5	35.4	16.6
서남부권	100.0	0.2	12.9	32.9	44.9	9.2
< 성별 >						
남자	100.0	0.1	11.1	38.1	41.8	8.8
여자	100.0	0.7	12.5	42.5	35.1	9.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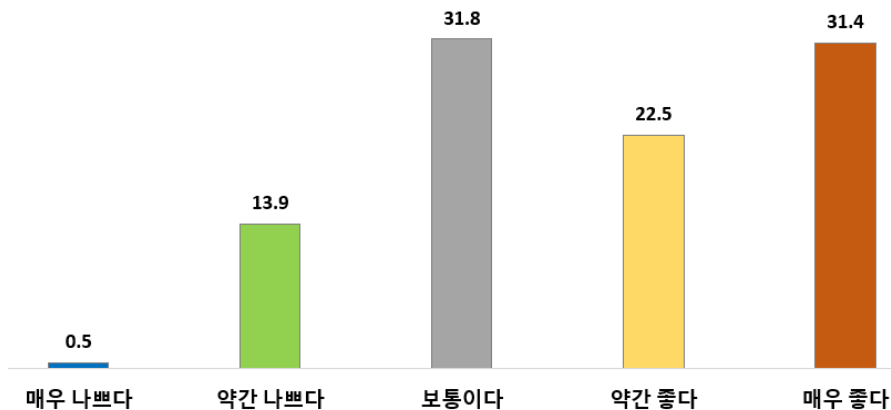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대기 환경 「좋다」

• 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등 대기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1.8%로 가장 많고, 「매우 좋다」(31.4%), 「약간 좋다」(22.5%)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14.4%) 응답보다 「좋다」(53.8%)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52.0%)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8.6%)과 서남부권(58.7%)은 「좋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2.7%)보다 남자(54.8%)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좋다」는 응답은 15~29세(67.0%)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60대(20.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표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단위: %)

구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7	10.4	49.9	24.9	14.1
2020년	100.0	0.0	3.4	26.5	47.4	22.7
2022년	100.0	0.5	13.9	31.8	22.5	31.4
< 지역별 >						
중부권	100.0	0.0	9.3	52.0	27.0	11.7
북부권	100.0	0.5	4.7	36.2	31.1	27.6
서남부권	100.0	0.7	20.5	20.1	16.3	42.5
< 성별 >						
남자	100.0	0.5	13.8	30.9	23.6	31.3
여자	100.0	0.5	14.0	32.8	21.2	31.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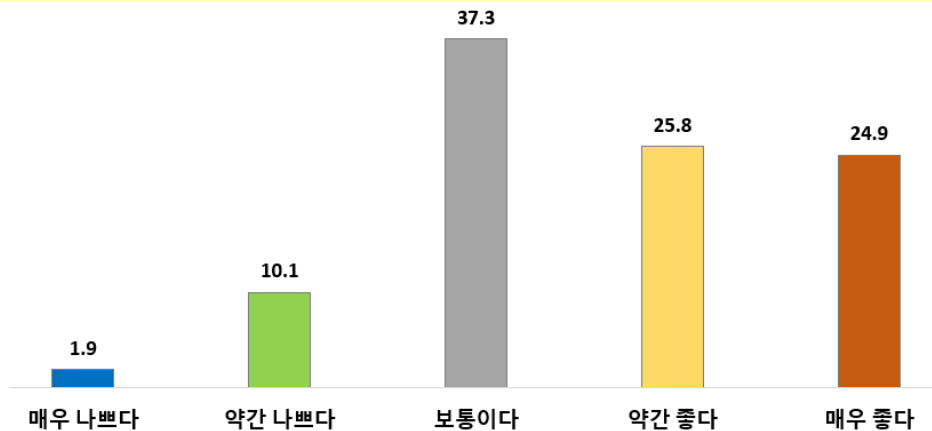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수질 환경 「좋다」

•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등 수질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7.3%로 가장 많고, 「약간 좋다」(25.8%), 「매우 좋다」(24.9%)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12.0%) 응답보다 「좋다」(50.6%)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51.4%)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9.8%)과 서남부권(54.0%)은 「좋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0.2%)보다 여자(51.2%)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좋다」는 응답은 70세 이상(55.1%)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40대(15.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표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단위: %)

구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3	5.9	52.0	28.6	13.2
2020년	100.0	0.1	2.3	28.0	47.5	22.3
2022년	100.0	1.9	10.1	37.3	25.8	24.9
< 지역별 >						
중부권	100.0	0.5	13.6	51.4	27.1	7.3
북부권	100.0	1.0	3.9	35.4	31.9	27.9
서남부권	100.0	3.0	11.5	31.6	22.3	31.7
< 성별 >						
남자	100.0	1.5	9.5	38.7	25.5	24.7
여자	100.0	2.3	10.8	35.7	26.1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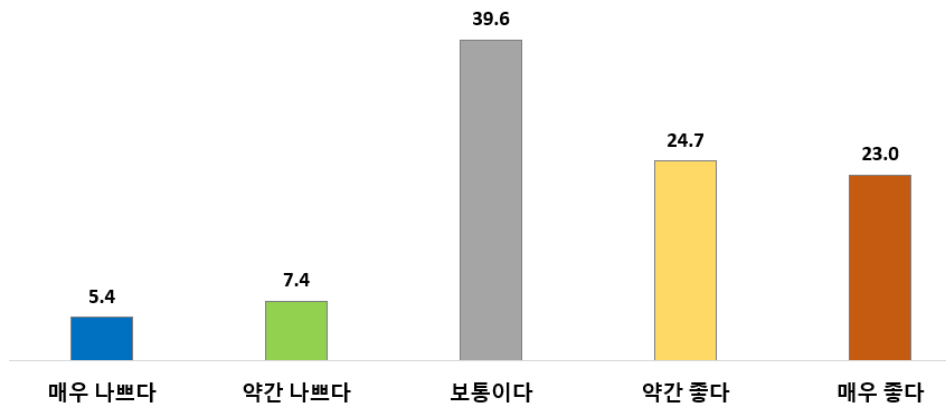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토양 환경 「좋다」

- 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9.6%로 가장 많고, 「약간 좋다」(24.7%), 「매우 좋다」(23.0%)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12.7%) 응답보다 「좋다」(47.6%)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4.1%)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4.0%)과 서남부권(52.5%)은 「좋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47.3%)보다 여자(47.9%)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좋다」는 응답은 30대(58.1%)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50대(17.6%)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표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단위: %)

구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4	7.1	49.1	34.1	9.3
2020년	100.0	0.6	9.0	33.4	39.9	17.1
2022년	100.0	5.4	7.4	39.6	24.7	23.0
< 지역별 >						
중부권	100.0	15.3	9.8	44.1	24.4	6.4
북부권	100.0	1.1	7.2	37.7	26.4	27.6
서남부권	100.0	2.7	6.3	38.5	24.0	28.6
< 성별 >						
남자	100.0	5.5	6.6	40.5	25.5	21.8
여자	100.0	5.2	8.3	38.6	23.7	24.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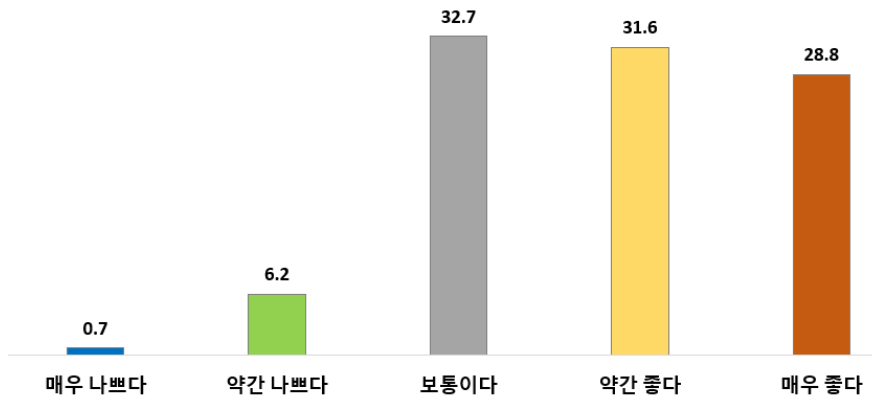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소음, 진동 환경 「보통이다」

• 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소음, 진동 환경에 대하여 「보통」 응답이 32.7%로 가장 많고, 「약간 좋다」(31.6%), 「매우 좋다」(28.8%)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7.0%) 응답보다 「좋다」(60.4%)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통」(49.4%)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8.6%)과 서남부권(73.8%)은 「좋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9.7%)보다 여자(61.2%)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좋다」는 응답은 30대(66.8%)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60대(10.4%)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표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3	2.6	43.7	31.5	21.9
2020년	100.0	0.2	1.0	25.9	50.6	22.3
2022년	100.0	0.7	6.2	32.7	31.6	28.8
< 지역별 >						
중부권	100.0	1.5	15.4	49.4	19.7	14.0
북부권	100.0	0.5	4.8	36.0	28.3	30.4
서남부권	100.0	0.4	2.6	23.2	38.8	35.0
< 성별 >						
남자	100.0	0.6	6.7	33.0	31.9	27.7
여자	100.0	0.9	5.7	32.3	31.2	3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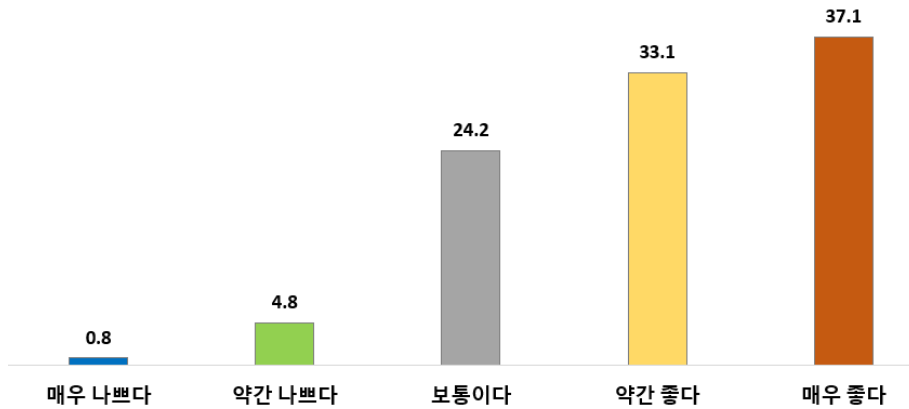
2-3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녹지 환경 「좋다」

• 자연경관 및 공원 등 녹지 환경에 대하여 「매우 좋다」 응답이 37.1%로 가장 많고, 「약간 좋다」(33.1%), 「보통」(24.2%)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5.6%) 응답보다 「좋다」(70.2%)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83.6%), 북부권(62.3%), 중부권(49.9%) 순으로 나타남.
- 여자(69.9%)보다 남자(70.5%)가 더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좋다」는 응답은 40대(74.3%)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60대(9.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표 2-3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6	2.8	51.5	27.1	18.0
2020년	100.0	0.1	1.0	21.0	52.9	25.1
2022년	100.0	0.8	4.8	24.2	33.1	37.1
< 지역별 >						
중부권	100.0	0.6	12.0	37.6	22.5	27.3
북부권	100.0	0.2	3.0	34.6	27.0	35.3
서남부권	100.0	1.2	2.2	13.0	40.9	42.6
< 성별 >						
남자	100.0	0.7	4.8	24.0	32.7	37.7
여자	100.0	0.9	4.7	24.5	33.5	36.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